

富有 부럽지 않은 23개 행복마을 공동체

우리 다르게 살기로 했다

조현 지음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거에 지쳐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살률,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취업률과 출산율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한다.

그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게 이중적인 자세를 취한다. 금수저 갑질에 분노하면서도 빈곤층 대우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임대주택 사람들과 한 동네에서 살거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적잖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얽매어 반공동체적 삶을 살아오고 있다.

대한민국 공동체 18곳, 세계 공동체 5곳을 총망라한 책이 나왔다. 이 공동체는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지 않아도 행복한 마을이다. 힘겨운 세상에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전문기자 조현이 펴낸 '우리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혼자서 외롭고 더불어 살아가자니 괴로운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되짚어준다.

저자는 지난 1999년 대안명문 시리즈로 영국 브루더호프공동체를 신문에 소개하면서부터 최근까지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마을과 공동체를 탐사 취재해왔다. 특히 책을 집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국내



광주시 광산구 신흥마을은 공동육아를 하는 이들이 한 집 두 집 시골에 들어서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 아이들은 봄·여름엔 함께 마당에 텐트를 치고 유성우와 별자리를 관찰한다. <후 제공>

마을과 공동체를 재방문해 함께 어울려 살아보고, 외국 언론도조차도 접근이 어려운 해외 공동체를 찾아 순례했다. 책은 3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인터뷰로 담아낸 생생한 사례와 명쾌한 분석, 시원한 통찰이 엮여 있다. 저자는 먼저 기존 마을을 좀 더 사이좋고 재미있는 마을로 변화시킨 '전환 마을'과 함께 집을 지어 사는 '공유 주택', 뜻 맞는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 만든 공

동체를 살펴본다. 서울의 '은혜 공동체', '소행주 1호', '은평 전환마을', '밝은누리공동체', 경기의 '마을카페다락', '논골마을', '굴방골목', 경남의 '민들레공동체', 충남의 '시온교회' 등의 특징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은혜 공동체는 온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 아이들을 입시 교육에서 해방시키고 엄마들이 잃어버린 삶의 여백을 찾아

준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엄마만 보면 밥을 찾았지만, 이곳은 아침이면 식사 당번이 내 아이, 내 아이 가릴 것 없이 학교 갈 아이들에게 빵과 계란프라이와 콘플레이크를 챙겨준다."

충남 홍성 갯골에선 사람들이 서넛만 모여도 우리 마을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협동조합을 만들어낸다. 휴전축얼렁뽕장조합, 목공실, 빵집 등 협동조합만 30여 개다. 이곳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풀무원과 덕에 귀촌자들이 늘었다. 또한 좋은 강자와 공연이 사시사철 진행되는 덕분에 문화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외국의 공동체는 자연 마을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 사는 마을을 일컫는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자본주의 삶의 파괴성을 보고 대안을 선택한 마을이다.

아무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태국의 아숙,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 마을인 인도네시아 오로빌, 진정한 소통으로 삶을 엮어가는 일본의 야마기시시 오늘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의 공동체들은 이상향이 아니다. 단지 욕망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삶의 가치관을 달리 했기에 이상향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상향은 장소라기보다 '살'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이다.

"마을이나 공동체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돌보고 협조하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행복해지고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스위브=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와 있던 누구에게나 더 폭넓은 삶을 만들 기회가 있다. 닉 리브그로브 조지타운대학교 실전경영학 교수는 럭비나 하키 기술 '스위브(Swerve)'를 예로 들면서 깊이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인생을 폭넓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스위브' 전략을 선택한다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과 커리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그 해답을 여섯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책에 담았다.

<마이일스톤-1만8000원>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성공교육·성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 학부모의 80%가 자녀 성공교육 방법을 모르는 충격적 현실에 혼자서 끙끙 앓는 학부모들의 성공교육 고민에 응답하는 책이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영화씨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면 부모가 직접 성공교육에 나설 것을, 유아기부터 일찍 시작할 것을, 그리고 더 솔직하고 더 적나라해질 것을 당부한다. 아이의 성공교육에 무지한 부모라면 이 책을 읽고 지금 당장 아이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나누자.

<메이트북스-1만5000원>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느냐' 사회학자 조은주는 박정희 시대 새로운 양상의 권력이 가족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관통했는가를 추적하며 한국 사회를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적 시각으로 성찰한다. 가족과 여성 문제를 역



사회 관점에서 다른 당대사, 젠더 이슈의 심층을 파헤치는 분석서로 읽히는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안목을 제공한다.

<창비-1만8000원>

▲이것이 이공계다=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공계란 어떤 곳인지를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주는 책이다. 기계공학자 조영호씨는 이공계인으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자신만의 경험과 통찰에 기대어 솔직하게 풀어낸다. 이공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공계인으로서는 어떤 길을 걸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등 중요한 단서를 구할 수 있다.

<해나무-1만4000원>

가족을 만드는 건 핏줄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 시간

좁도독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지음, 장선정 옮김



맛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의 작품은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는 언제나 깊은 울림을 준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처음 접한 건 1993년 작 '아무도 모른다'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네 아이, 고작 14살의 아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동생들을 돌본다. 하지만 막내 유키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유키가 가장 좋아하는 비행기를 볼 수 있는 공항 근처에 유키를 묻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이 영화로 주인공 아카라 역을 맡은 아카라 유야는 칸느국제영화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후 고레에다 감독이 내놓은 영화 '바

고레에다 감독이 펴낸 신작 '좁도독 가족'은 국내에서는 '어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영중인 영화를 소설로 옮긴 작품이다. 직접 시나리오를 쓰는 그는 자신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 '좁도독 가족'은 올해 열린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

상했다. 소설에 등장하는 '가족'은 제목 그대로 모두 무연가를 흠친다. 할머니는 파친코에서 열차리 사람의 구슬을 태연히 훔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앞세워 좁도독을 일삼는다.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손님 옷의 주머니를 뒤져 물건을 훔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좁도독질을 배운다. 여기에 어머니의 이복동생까지 모두 5명의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느 날 작은 소녀 '유리'가 찾아온다.

사실, 이들 가족은 완전히 혈연으로 뭉친 관계는 아니다. 아들 쇼타는 부부가 주워온 아이고, 유리 역시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동네 아이를 품어준 경우다. 6명의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잔혹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하다. 꼭 핏줄로 연결된 것만이 가족이 아님을, 함께 살아낸 시간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어 보여준다.

이상한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낸 소설은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이 터지면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흥미롭게 전개된다. 소설에서는 영화에서 생략된 디테일, 등장 인물의 사연, 차마 말로 못하는 배우들의 속마음까지 세세히 알 수 있어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영화는 꼭 관람해 볼 것. 고레에다 감독 특유의 잔잔한 연출과 함께 키키 키린, 릴리 프랭키 등 명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쇼타 역을 맡은 아역배우 쇼 카이리의 모습은 '아무도 모른다'의 아카라 유야를 연상시켜 아련함을 전한다.

<비채-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안내서=미술관 체험과 작품 감상,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술관 안내서는 어린이 융합 예술교양 그림책으로 가장 실용적인 미술관 사용법과 소통하는 작품 감상법을 친근하게 담았다. 20편의 고전·현대 명화를 보며 미술관에 대한 지식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어린이 미술관 입문서다.

<논장-1만3000원>

▲문어 목욕탕="우리 동네에 새로운 목욕탕이 생겼다. 짝꿍 민지는 어제 엄마랑 다녀왔다고 했다. 나는 목욕탕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난 엄마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동네에 누구든 혼자 갈 수 있는 '문어 목욕탕'이 생겼다. 혼자 온 아이는 단돈 80원에 시원한 목욕을 즐길 수 있다.

<노란상상-1만3000원>

▲빙하기 사라진 내일=영국 로지 이브의 책으로 영화관 스크린 비율(2.39:1)에 광대한 자연을 담았다. 빙하기 녹아내려 엄마와 떨어져 혼자가 된 아이 꿈은 뚝뚝처럼 묻는다.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3인칭 시선을 따라가는 지문은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의식을 무게감 있게 담아내는 장치가 된다.

<한울림어린이-1만5000원>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의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①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8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영촌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①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427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2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②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8천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 3억9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영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이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1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권,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